

Dr. Evelin McCune 소장 한국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강사 유혜영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학과

교수 금기숙

目 次

I. 서론	IV. 1910~1920년대의 장신구류
II. 1910년 전후의 아동복	1. 자수제품
1. 남아복	2. 은세공품
2. 여아복	3. 기 타
III. 1920년대의 복식	V. 결 론
1. 남성복	ABSTRACT
2. 여성복	

I. 서론

본 연구는 1907년 평양에서 출생하여 유년기와 청년기를 평양에서 보낸 Dr. Evelin McCune¹⁾이 보존해 온 McCune 一家의 한국 복식 소장품을 정리하여 소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²⁾

Dr. McCune은 현재 Hawaii 섬의 Hilo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그녀의 남편 고 George S. McCune 역시 1908년 평양에서 출생하여 성장기를 보냈으며 Evelin과 결혼한 즈음인 1930년경 함

께 한국을 떠났다. 이 소장품들은 그 당시 이들이 미국으로 가지고 갔던 것이어서, 소장품들의 제작 및 사용 년대가 1908년에서 1930년 사이로 비교적 확실하다. 더구나 이 소장품들은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 1940년대의 태평양전쟁과 1950년대의 6.25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귀중한 학술 자료로서의 의미도 크다. 여기에는 McCune 박사의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밀거름이 된 것은 물론이다.

선교나 교육 사업 등을 위해 평양에 정착한 이

1) McCune박사의 선친인 Arthur Becker는 언더우드 형제와 함께 연세학당을 창설한 3인 중의 한사람으로 여사가 출생할 당시에 평양에서 교육 및 선교 활동을 하였으며, 남편인 George S. McCune의 선친 역시 평양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소장품 중에는 Dr. McCune의 선친을 백(Becker)목사님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선교활동을 활발히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미국 하와이 대학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에서 Dr. McCune과의 면담을 결한 소장품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복식자료에 대한 조사는 1995년 6월 28일~7월 1일까지의 1차 조사와 7월 13일~7월 17일까지의 2차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들 양가는 당시 배타적이었던 한국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보수적인 한국 생활에 동화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Dr. McCune 부부가 태어날 때부터 한국 고유의 의복들을 자연스럽게 착용하며 자라났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며, Dr. McCune은 지금도 그 기억들을 소장품과 함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소장품은 의복, 장신구 및 기타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80여 품목에 이르고 그 명세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은 남아용이 조끼 한점, 저고리 세점으로 네점이고, 여아용은 저고리, 치마, 속바지, 두루마기 및 타래버선이 각 한점씩으로 모두 9점이다. 성인 남성복식은 정자관, 갈모, 대나무 등거리와 토시, 모시 두루마기, 자주 접두루마기, 옥양목 바지와 저고리, 명주 솜저고리, 한양 절충식 모시 상의와 바지 각 한점씩으로 12 품목이고, 여성용은 삼회장 노랑 누비저고리 두 벌, 초록 장옷, 연두색 토시와 미투리 한켠레 포함하여 5점으로 총 17점이다.

장신구류는 크게 자수제품과 은세공품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수제품은 귀주머니 8점, 염낭 4점, 골무 3점, 수노리개 5점, 수저집 3점, 잣배갓모 1점, 가위집 1점, 기타 장식 주머니 1점으로 모두 26점이다. 은세공품은 삼작 노리개 1점, 방아다리 노리개 1점, 침낭 노리개 1점, 어린이용 칠보 노리개 2점, 침통 노리개 3점, 장도 노리개 4점, 칠보 민갑 2점과 반지 1개를 더하여 14점이다. 그 외에 紅色 細條帶 1점, 얇은 은도금 쯤匣 노리개 1점, 기타 장식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매듭과 술이 3점, 낫술가락 4점과 낫수저 한벌, 낫쇠 담뱃대 2점, 담뱃대 머리부분만 2점 등이 있고 191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제작된 기념패 1점 등으로 기타 물품이 15점이다.

이들은 모두 Dr. McCune의 정성이 깃든 귀중한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복식 연구의 자료로 가치가 있는 몇가지의 품목들을 정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1910년 전후의 어린이 의복

1. 남아복

(1) 색동셔 저고리

청홍을 주조색으로 하는 남자 어린이 저고리로, 셔에는 색동 줄무늬를 사용하였고 왼쪽의 깃에는 다양한 색상의 조각 형질을 이어 붙인(patch-work) 잣깃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



(그림 1) 색동셔 저고리

이 아기 저고리는 등길이(23.5cm)와 화장(33.3cm)이 요즈음 둘장이의 기준치수인 등길이(28cm), 화장(36cm)보다 작은 치수이지만, 둘 전에는 이러한 옷을 입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둘옷으로 제작되어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George S. McCune의 출생년도인 1908년의 다음해인 1909년의 유품이라 하겠다.

겉감은 紗이고 안감은 부드러운 綿으로 만들었다. 안감은 처음에는 홍색이었을 것이나 부분적으로 많이 탈색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부분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옷고름으로는 목면 소재의 줄무늬 테이프 조직이 사용된 점이 특이하다. 이 소재는 한국전통복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개화기에 들어온 서양 요소의 하나로 보인다. 더우기 이러한 시도는 착용자의 가족이 서양 인이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한국적인 정서와 동떨어진 이 옷고름의 사용이 처음부터 실용성을 고려한 것인지, 원래의 옷고름이 떨어져 나간 후에 아무것이나 주변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다 보니 사용된 것인지는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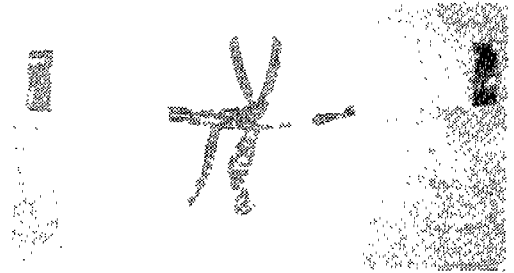
겉과 끝동은 남색, 소매는 홍색인데 진동선이 조끼와 같은 곡선이고 직배래이다. 이 저고리의 두드러진 특징은 깃과 섶에 있다. 즉 안깃은 素色인데 비하여 겉깃은 여러 색상의 삼각형 조각 형질을 이어 만든 잣깃을 사용한 점이다. 또한 안섶은 길보다 약간 짙은 남색이고, 겉섶은 일곱개 색상의 조각 형질을 세로로 이어서 만든 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깃의 외곽선에는 4가지 색상의 수실로 장식선을 돌렸는데, 특히 왼쪽 즉 겉깃 들레를 오른쪽인 안깃 가장자리 보다 두껍게 둘러서 좌우의 선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여러 색실로 깃의 외곽선을 좌우가 차이나게 장식침으로 두른 양식은 소장품 중 아동복 전반에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다. 정확하게 뒷고대 중심에서 구분하여 왼쪽은 네줄, 오른쪽은 두줄의 장식침이 시작되어 있다.

저고리의 잣깃, 색동섶, 장식선 등에서 보이는 분명한 좌우의 구별은 한복의 비대칭적인 조형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비대칭과 아울러 선적이고 평면적인 부분장식에 의한 다양한 표현은 다른 조형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국적인 조형양식이다. 이러한 점이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정성에 의해 아동복에서는 더욱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게 표현된 점이 주목된다.

(2) 노랑 솜저고리

겉감은 黃色, 안은 紫色의 明紬로 지은 솜저고리로 끝동은 紫朱色이고 깃은 藍色으로 配色하였다. (그림 2) 앞의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曲線의 분위기가 가미된 직배래이다. 깃의 외곽선에는 靑, 白, 紅의 삼색 수실로 역시 왼쪽은 네줄, 오른쪽은 두 줄의 outline stitch가 자수되어 있다. 등길이 (34cm)와 화장 길이(44cm)로 보아 다섯살 정도의 남자 어린이가 입을 만한 크기이므로 George S. McCune의 것으로 볼 때 1910년대 초의 것이라 하겠다. 섶 윗나비 5cm에 비하여 섶 아랫나비는 12.9cm로 상당히 넓다. 이러한 경향은 소장품



(그림 2) 노랑 솜저고리

중 남자 저고리와 두루마기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지만 이 저고리에서는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섶 아랫나비가 넓기 때문에 입었을 때 저고리의 앞부분이 깊숙하게 여며지는 점이 조선 중기의 양식과 닮았다. 이것은 솜저고리이므로 북쪽의 추운 날씨에 대비한 방한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한창 활동적인 어린아이의 외복이기에 앞여밈을 깊게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보통 긴고름을 다는 위치에 44cm길이의 짧은 고름이 달려있다. 이것은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튼튼하게 박아 놓은 고리에 꿰어서 다시 앞중심으로 잡아 당기게 되어 있다. 72cm의 긴 고름은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달아서 등 뒤를 가로질러 왼쪽 겨드랑이 밑에 고정시킨 다음 앞으로 돌려서 짧은 고름과 매게 되어 있다. 이 고름의 소재는 빨간 바탕에 여러가지 꽃무늬가 흩어져 있는 포플린으로 저고리의 소재와 다른 것을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원래의 것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달은 것인지 혹은 실용성을 위해 명주보다 튼튼한 면을 사용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노랑 저고리와 대조되는 빨간색을 사용한 점은 장식적인 의도가 다분히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장식성은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에 부착된 남색 고리의 연두색 실을 사용한 바느질에서도 감지된다. 왼쪽 겨드랑이 부분에 달린 분홍 염낭 역시 장식적인 배려를 보여주며 당시 어린이들의 차림새를 알게 해준다. 노랑 저고리에 두른 남색 깃과 분홍 염낭, 자주 끝동과 빨간 옷고름 등이 이루는 깔끔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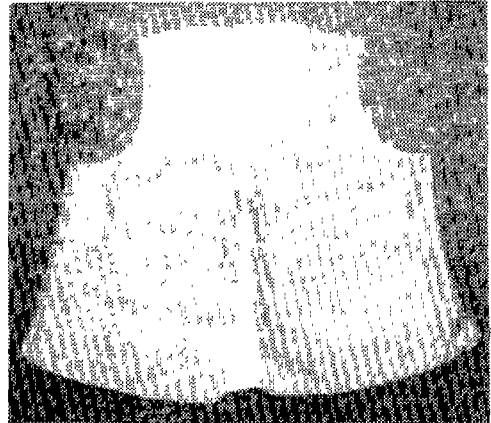
은화한 색조화는 명주의 부드럽고 화사한 촉감과 어우러지면서 우리 고유 복식이 아니면 찾아 볼 수 없는 귀한 아름다움을 보인다.

(3) 분홍 솜저고리

솜을 두어 안팎을 명주로 만든 저고리이다. 길은 분홍색, 안은 素色으로 둘 때와 4, 5세때 입었던 것들과는 달리 세부의 장식과 색대비가 전혀 없다. 등길이가 40cm, 화장이 61.5cm로 우리나라 아동 표준치수와 비교하면 9세(40, 52)와 11세(46, 60) 사이의 치수인데 화장이 등길이에 비하여 상당히 길다. 이는 팔다리가 긴 서구인의 체형을 위한 옷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착용자의 나이가 10세 정도인 1910년대 말경으로 착용연대를 한정할 수 있다. 역시 직배래이고 깃나비 5cm, 섶 윗나비 5.2cm 인데 비하여 섶 아랫나비는 9.8cm로 상당히 넓다.

(4) 남색 조끼

남색 공단으로 겹을 하고 흰색 면으로 안을 댄 전형적인 조끼이다.(그림 3) 앞의 분홍 솜 저고리와 비슷한 크기로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 분홍 저고리 위에 함께 착용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조끼는 甲午更張 이후에 양복이 들어오면서 양복의 조끼 형태를 따라 만들어서 일반에서 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입었었다.³⁾ 따라서 그 형태는 서양 조끼에 근원을 가져서, 진동선과 주머니 등의 재단법이 서양식이며, 양 옆술기는 좌식 생활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밑에서 약 4.6cm 씩 트여 있다. 안단을 대지는 않았으나 목둘레와 도련선을 따라 상철으로 눌러 박아 그 형태는 안정적이다.



(그림 3) 남색 조끼

2. 여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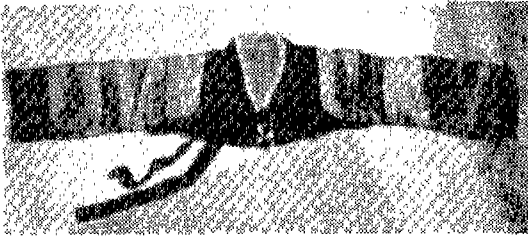
(1) 잣섶 저고리

겉감은 紗로 남색 길, 분홍 소매에 자주 깃과 고름, 남색 끝등으로 배색하였으며 깃둘레는 남아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좌우의 굵기가 차이 나게 색실로 장식하였다. 겉섶은 양중맞은 잣섶으로 하였는데, 빨강, 남색, 자주색의 삼각 조각 형겼들 사이에 흰색을 집어 넣어 선명한 색조화를 이루고 있다.(그림 4) 이 잣섶은 남색 길, 자주 깃과 이어지면서 세련되고 산뜻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 잣섶 저고리는 색동섶 저고리(그림 1)와 함께 개화기의 여아 저고리에 섶을 작은 삼각형 조각천을 이어붙인 잣섶으로 꾸며준다든가 색동줄을 세로로 사용하여 치장한 저고리 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실례이다.⁴⁾

안감은 부드러운 면으로 길은 담청색, 소매는 흰색인데 부분적으로 탈색되어 있다. 아기 저고리 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짧은 길이와 고름, 직배래 및 도련 등에서 당시의 여자 저고리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등길이 13.8cm, 화장

3) 유희경(1980), [한국복식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289.

4) 韓國服飾圖鑑(1986), <Ⅲ>, 서울: 韓國放送事業團, pp.175~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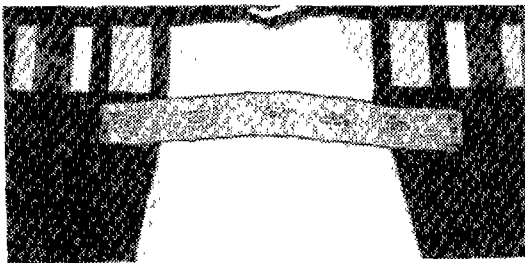


(그림 4) 잣설 저고리

37cm의 크기로 요즈음 둘장이 표준 치수인 16cm, 36cm에 비교하여 볼 때 화장은 비슷하고 길이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저고리의 길이가 짧았던 유행을 고려하면 대체적으로 뚝 무렵의 옷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Dr. McCune의 둘인 1908년이나 1909년 경에 제작되고 착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까치 두루마기(색동 두루마기)

길이(80cm)와 화장(49,3cm)으로 보아 7, 8세 용의 여자 어린이 명절 두루마기로 보인다.(그림 5) 연두 길에 자주색의 깃과 끝동을 대고 소매는 8가지 각색 -홍, 황, 녹색, 자주, 백, 청, 분홍, 연두-을 이어 색동 소매를 만들었다. 옷고름은 생략하고 같은 위치에 단추와 고리를 달아 간편하게 여밀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거드랑이 바로 밑의 위치에 화사하게 목단문을 수놓은 허리띠가 뒷중심에 고정된 채 앞으로 둘러 역시 두개의 단추로 간편하게 여밀 수 있게 하였다. 이 단추의 사용은



(그림 5) 까치 두루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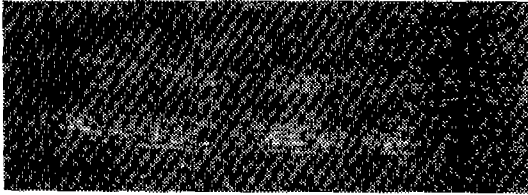
당시의 개화 사상과 실용주의 사상의 결과로 성인들의 두루마기나 저고리에도 사용되었다. 8cm 너비의 이 띠의 안감은 옥색이고, 겉감은 황토색 바탕 위에 붉은 목단이 초록 잎과 함께 그린 듯이 정교하게 수 놓아져 있는데, 가장자리는 짙은 남색 선이 둘러쳐져 있다. 깃의 외곽선을 따라 장식선을 들렀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왼쪽 겹깃은 네줄(홍, 황, 청, 백), 오른쪽 안깃은 두줄(홍, 황)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이것은 남아복의 색동 설 저고리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비대칭의 요소이며, 당시의 아동복 장식에 자주 사용했던 기법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외에 6, 7세용 목면 속바지 한벌과 상태가 좋은 타래 버전 한벌레가 있다. 이 속바지는 Dr. McCune이 착용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교사의 어린이들이 한국의 아이들과 같은 의복을 자주 착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역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3) 홍갑사 홀치마

홍색 갑사 홀치마는 밑단이 식서로 되어 있어, 단을 처리하기 위한 바느질이 없다. 즉, 네폭으로 된 치마의 밑단을 식서로 재단을 하였고, 가운데 두폭에 걸쳐 아래 쪽에 글자가 시문되어 있다. 한 폭이 약 38cm인 4개의 폭으로 구성된 치마(총너비 152cm)는 길이가 108cm로 반가 여성의 치마(폭 315cm, 길이 120cm)⁵⁾와 비교할 때 폭도 반정도이고, 길이도 매우 짧다. 이것은 Dr. McCune의 것이었다는 증언으로 보아 그녀가 어렸을 때에 직접 입었던 치마로 보인다. 아랫단에서 10cm 위에는 2줄의 금박이 횡으로 찍혀져 있고 치마의 가운데 2폭에는 끝단 쪽에 직사각형의 금박 테를 두른 안에 '裕淸?仁正記別紋紗'라는 글이 역시 금박되어 있다. 裕와 仁 사이의 글씨는 淸字와 비슷하나

5) 孫敬子(1984), “개화기(開化期)의 여복(女服)”, [韓國의 服飾], 서울: 韓國文化財管理局, p.430.



(그림 6) 홍갑사흘치마

판독이 힘들고 裕仁은 당시의 日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단의 식서로 보아 치마자락을 위하여 옷감을 직조한 것으로 보인다. 허리는 보통의 백색 무명으로 요즈음에 비해 넓은 띠(4.7cm)가 달려 있다.

Ⅲ. 1920년대의 복식

1. 남성복

(1) 백색 옥양목 홑 저고리

저고리 치수를 보면 신장 165cm 정도의 표준치수와 품(50cm)과 화장(72.2cm)은 동일하나 등길이(55.6cm)가 약간 짧다. 형태는 요즈음 저고리와 비교할 때 깃은 비슷하나 고름의 길이는 오히려 더 길고 직배래이며 쇄의 형태에 있어서 아랫나비(15.4cm)가 윗나비(9.7cm)보다 상당히 넓어 쇄선의 경사가 크게 나타난다. 양 겨드랑 밑에는 사각형의 보강용 직물이 한겹 덧대어 있다.

(2) 백색 명주 솜저고리

옥양목 저고리에 비하여 품, 화장, 길이가 약간씩 크다. 그러나 소매부리가 3cm가 작은 17.5cm인 것은 방한효과를 고려한 때문이라 생각되며 쇄 아랫나비(16cm)가 더 넓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3) 모시 상의

모시로 만든 상의는 깃과 앞트임을 서양식으로 구성한 홑겹 상의이다. 진동과 배래는 직선으로

우리 고유의 구성방법을 사용하였다. 깃은 스탠드 칼라와 같은 모습인데, 뒷고대의 높임분이 4.5cm이다. 앞트임은 단추를 5개 달아서 현대 와이셔츠의 트임과 같은 모양을 보인다. 등길이 58.2cm, 화장 73.3cm, 진동 24.4cm, 수구 20.3cm이며 배래선은 매우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양옆의 앞면 하단부에 네모형의 주머니를 부착하였으며, 어깨와 겨드랑 밑에는 실용성을 고려한 힘받이 형질을 보강하였다. 이 상의는 한복의 전통미와 양복의 실용성을 접목시킨 절충식 의복으로 당시 개화 사상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4) 자주색 명주 두루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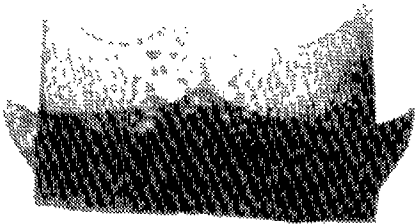
질은 자주색의 품질이 좋은 명주로 만든 것으로 흰색 絹으로 안을 했다. 화장은 다소 짧은 67.8cm로 George S. McCune이 청소년기에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1920년대 중반경의 것이라 하겠다. 이 옷의 특징은 쇄의 윗 넓이(8cm)에 비해 쇄의 아랫나비(30.2cm)가 상당히 넓어서 앞여밈이 깊어 보이며, 무의 아랫 나비(26.6cm)도 역시 넓다. 도련의 선은 상대적으로 길어져서 풍성한 형태가 되며, 두루마기의 아랫폭이 치렁하게 휘감기는 입음새가 된다. 소매는 직배래에 가깝고, 옷고름(각 51.8cm와 80.3cm)은 착용자의 나이에 연유해서인지 성인 남성 저고리와 비교할 때 짧다.

(5) 모시 홑 두루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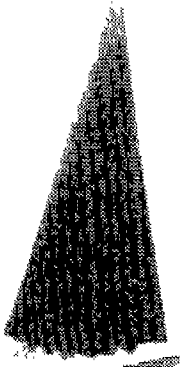
여름용인데도 앞의 자주 두루마기 보다 화장(73.5cm)이 긴 것으로 보아 George S. McCune이 더 성장한 후인 1920년 후반의 것으로 보인다. 쇄와 무의 아랫나비는 22cm, 19cm로 자주색 명주 두루마기 보다 좁고 고름도 긴 것이 주목된다. 전반적인 형태는 현대의 두루마기와 거의 같아 보인다. 앞의 자주 두루마기와의 차이점은 1920년대 중반과 후반의 유행에 따른 변화로 추정되나 더 많은 자료의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6)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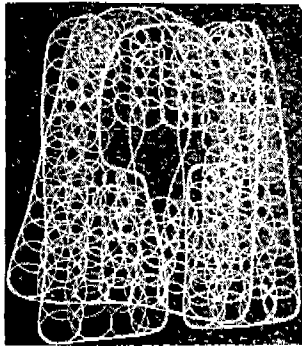
기타 복식 자료로는 현재 남자 바지와 구성과 형태가 같은 옥양목 훌바지 한벌과 모시 훌바지 한벌이 있다. 모시 바지는 (3)에서 언급한 절충식 모시 상의와 한벌인 듯 하다. 또한 보존 상태가 아주 훌륭한 程子冠(그림 7) 한점, 油紙로 된 갓모(갈모)(그림 8) 한점, 남성용 여름 등거리(그림



(그림 7) 정자관



(그림 8) 갈모



(그림 9) 등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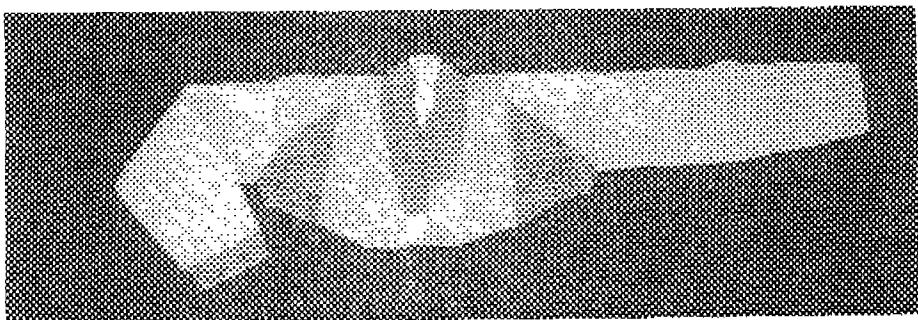
9)와 토시 한벌 등이 있다.

2. 여성복

(1) 굵은 누비 저고리

주소재로 명주를 사용한 저고리로 주조색은 황색, 삼희장은 썩색의 기미가 있는 고동색이다. 삼희장의 색은 바랜 것으로 보이며, 원래의 색은 조선시대의 유물에 자주 보이는 자색으로 추정된다. (그림 10) 저고리의 표면은 약 0.9cm 넓이로 비교적 넓게 누벼져 있고, 옷고름은 떨어져서 분실되었다. 안감은 백색 무명을 사용하였다. 깃은 당코 깃으로 넓이는 5.3cm, 끝동의 넓이는 3.8cm이다. 대부분의 저고리가 깃과 끝동의 넓이가 비슷한 점을 상기해 볼 때, 이 넓이의 차이는 본 소장 저고리의 특징이 될 수도 있다.

겨드랑 밑의 옆길이는 2.9cm이며 결마기는 겨드랑부분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로서 배래선에 까지 연결된 일반적인 결마기와 구별되는 점이 특이하다. 이 형태의 결마기는 20세기 전반기의 저고리에서는 그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 연대 추정에 의문의 소지가 있다. 한편 결마기의 높이가 저고리 길이의 3/4 정도까지 올라와서 예각을 보이고, 소매 부분에는 결마기 부분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고리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헤원 신윤복의 「美人圖」에 보이는 저고리의 형태와 유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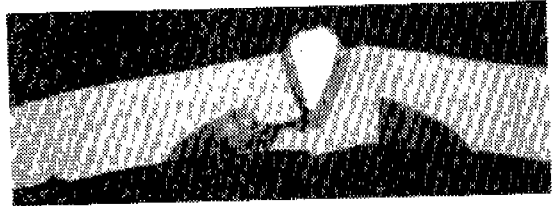
(그림 10) 굵은 누비저고리

저고리의 치수를 비교해 보면 1888년대의 양장
군저고리⁶⁾와 유사하다. 결마기의 형태가 특이한
점은 본 소장품의 추정 上限 年代가 1920년대 初
이므로 美人圖의 의복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서북지방의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
다. 또는 1890년대의 유물들과 유사한 데 1920년
대의 저고리로 분류되는 것은 서북지방이 경기지
방보다 유행이 뒤졌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고운 누비 저고리

자색 삼회장 의 황색 저고리로 비교적 섬세하게
제작된 저고리이다.(그림 11) 누빔의 간격은 0.
35cm로 앞의 저고리(0.9cm)보다 훨씬 곱게 바느
질 되었다. 저고리의 화장은 68.5cm이며, 길이는
18cm로 매우 짧은 저고리이다. 겨드랑미의 옆길
이도 0.3cm 정도로 매우 짧아서 저고리를 옆으로
펼쳐 놓았을 때, 양쪽의 소매가 부각되는 긴 직사
각형을 이룬다. 깃의 넓이는 5cm이며 끝동 부분
은 선의 흔적만 남아 있다.

깃은 자색의 당코깃이며, 옷고름, 결마기, 끝동
등에도 자색의 사용이 반복되어 일종의 리듬감이
있다. 옷고름은 저고리의 다른 구성부분에 비해
넓이가 좁아 보이며, 그 부착된 위치가 독특하다.
저고리의 왼쪽 옷고름은 당코깃의 중간에 달려 있
지만 오른쪽의 옷고름은 오른쪽 결마기의 솔기 안
에 물려 부착되어 있어서 착용했을 때에는 자색이
깃에서 결마기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
인다. 이러한 예는 1900년 전후의 저고리에서는
역시 찾아 볼 수 없고, 역시 신윤복의 미인도의 저
고리에 보이는 옷고름과 유사해 보인다. 신윤복의
그림은 18세기 후반으로 볼 때 1800년대로 추정된
다.



(그림 11) 고운 누비저고리

또한 이 저고리는 1837년으로 추정되는 德溫公
主 누비삼회장저고리⁷⁾와 그 형태와 치수의 비례면
에서 매우 유사한 점으로 보아 Dr. McCune의 소
장품이라 해도 그 제작년도와 착용년도를 올려서
추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초록장옷

초록색 장옷은 조선시대의 풍속화⁸⁾에서 자주 그
착용 모습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쓰개의 하나이
다. 의복의 주 소재는 고운 초록색 명주를 사용하
였고, 안감은 백색의 무명을 사용하였다. 특이한
점은 걸쇠의 안쪽에 'Mrs. Morris'라는 이름이 쓰
인 백색의 형질 조각을 부착한 것이다. Mrs. Mor
ris는 당시의 선교사 중의 한명으로 보이고, 이것
이 어떻게 본 소장품에 부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외출
시에는 외국인들까지도 장옷을 착용하고 다녔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인다.

깃은 꽃자주색 명주를 사용하였고, 옷고름은 깃
과 같은 꽃자주색 명주와 홍색 명주 고름 2개가 좌
우 양쪽에 부착되어 모두 4개가 달려 있다. 녹색
장옷은 혜원의 풍속화에서 자주 보이며, 덕온공주
의 장옷과 그 형태와 비례가 유사해 보이거나 德溫
公主의 장옷⁹⁾에는 옷고름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6) 柳喜卿(1986),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出版部, p.492.

7) 石宙善(1985), [衣], 서울: 檀國大學校 出版部, p.105.

8) [韓國의 美], 琴基淑(1994), [朝鮮服飾美術], 서울: 悅話堂, p.72.

9) 石宙善(1985), [衣], 서울: 檀國大學校 出版部, p.99.

1개로 3개가 달려 있는 것이 다르다. 이 옷고름은 다른 소장품이나 조선시대의 풍속화¹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장옷을 머리 위에 착용할 때 고정하기 위하여 턱밑에서 손으로 잡아서 여몄던 것인데, 그 길이가 필요 이상으로 긴 것은 장옷의 앞부분에서 흔들리는 여유 부분을 고려한 심미성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끝동은 안감과 같은 백색 무명으로 10cm 넓이의 거들지를 달았다. 거드랑이 밑에 부착된 작은 삼각형(사선이 3cm)의 무에 깃과 같은 꽃자주색의 명주를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사실 장옷의 소매는 착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여유분량을 제공하는 기능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무의 부착은 장식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초록과 강한 대비를 보이는 꽃자주색을 거드랑이의 무로 사용한 것은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얼핏얼핏 보일 것을 예상한 의도적인 장식의지의 한 표현이라 하겠다.

장옷은 앞자락 한 쪽이 4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쪽의 길, 섹, 무 등으로 밑단이 약 97cm의 길이에 이르도록 부채살처럼 퍼져있고, 뒷자락은 두장의 길(각 15cm)과 무(각 33.5cm)로 전체 밑단의 길이 역시 97cm에 이른다. 이 결과 장옷의 전체 밑단의 길이는 약 291cm에 이르는 꽤 넓은 폭으로 머리에 착용했을 때 충분히 몸을 덮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길이는 보통 상판 두루마기 치수와 유사하며(길이 122.5cm, 화장 68.3cm, 진동 23cm), 소매는 거의 직배래(20cm)로 수구(18cm)에서 약간 곡선이 가미되어 있다. 직선적인 분위기는 직선에 가까운 깃중등이에서도 반복되는데, 이 형태는 1910년대의 저고리와 같은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IV. 1910년~1920 년대의 장신구류

1. 자수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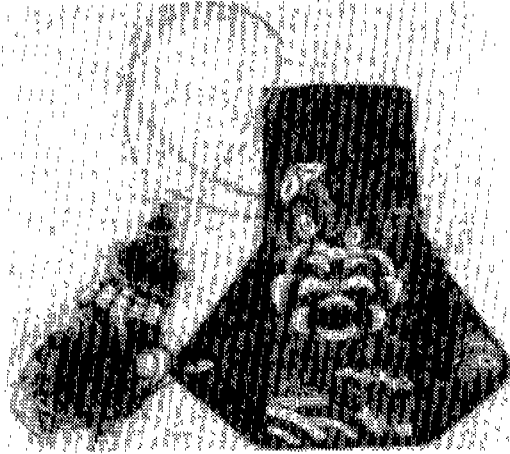
(1) 주머니

주머니가 없는 한복에서 귀주머니나 옆낭은 매우 실용성이 높은 장신구로서 많이 애용되었다. 본 소장품 중에서도 자수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머니이다. 주머니는 귀주머니가 8개, 두루주머니가 4개로 모두 12개인 데, 자수 장식이 시문된 것은 緞으로 된 귀주머니 5개와 두루주머니 2개 등 모두 7개이다. 나머지는 紗이며, 사로 만든 것에는 문양이 없다.

이들 문양에는 조선조 후기의 특징인 사실적이면서 대범하고 단순한 감각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문양이 있는 주머니는 모두 앞뒷면의 문양의 종류는 유사하나 그 표현은 다양하게 시도되어 있다. 구체적인 형태는 서로 다르게 시문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반복적인 동일한 표현을 가능한한 피하려고 하였던 한국 조형양식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귀주머니에는 삼각형의 괴불이 풍성하게 부착된 예도 있는데, 이는 당시대인들의 길복판을 반영하는 한 예이다.

① 주홍귀주머니

앞면 중앙 아래로부터 수과문, 목단문, 나비문 등을 차례로 수놓았는데, 이들은 흔히 활옷 등과 같은 혼비용품에서 자주 활용되는 소재들이다. 양쪽 귀에는 박쥐가 시문되어 있는데, 이 또한 청대 이후 사용되었던 문양 체계로 한국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많이 사용된 것이다. 이들 문양구성은 전형적인 조선조 후기 수공제품의 문양 배치와 형태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뒷면에는 다른 종류의 문양과 혼합하지 않고 목단, 연화, 국화, 매화의 꽃 문양들만이 더욱 단순화 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즉 중앙에 정면 묘사된 목단문 위로 연화문



(그림 12) 주홍 귀주머니

이 측면 묘사되었고 양옆에는 같은 형태의 정면형 국화문이 색채와 세부가 서로 다르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매화문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다.(그림 12)

실제 크기와는 전혀 관계 없이 목단, 연화, 국화, 매화가 모두 같은 크기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소재의 실제 묘사보다는 주제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② 빨강 귀주머니

앞의 주홍 주머니보다 훨씬 사실적이고 회화적으로 표현된 목단과 나비가 앞면 중앙에 있으며 양옆으로는 도라지 꽃이 꽃봉오리가 달린 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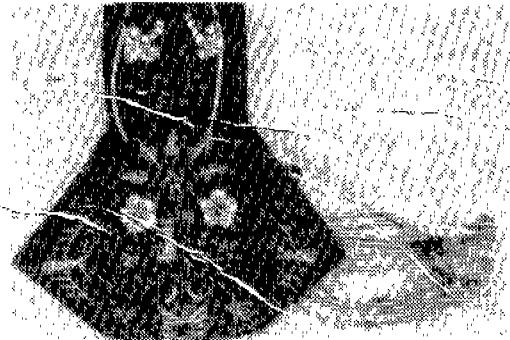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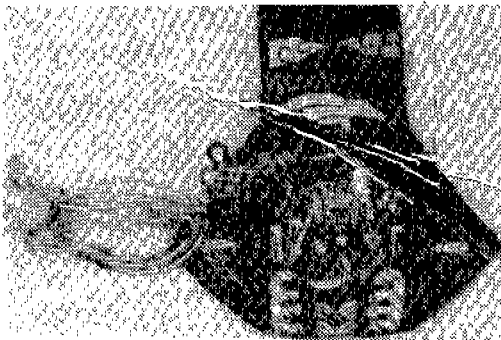
와 함께 수놓였다. 뒷면은 앞 보다 비교적 단순하게 생략되었으나 가운데 국화는 잎과 꽃잎의 색채를 복합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③ 청홍 귀주머니

빨강의 바탕천에 주머니의 귀부분에 청색천을 첨가하여 강한 색채대비를 보이는 주머니이다.(그림 13) 앞 면의 문양은 전형적인 십장생문으로 치밀하고 정확하게 시문되어 있다. 즉 아래에서 부터 수파문, 그 위로 거북이가 고개를 뒤로 쳐들고 있으며 양옆으로 바위를 상징하는 괴석문이 색동으로 자수되어 있다. 바위의 한쪽에는 대나무, 다른 한 쪽에는 영지초가 들어 있다. 가운데에 사슴이 뒤로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위로는 학이 비상하고 더 위에는 오색 구름에 둘러싸인 해가 있다. 홍색 해의 가장자리를 녹색 선으로 둘러주었는데 이는 홍색바탕 위에 홍색의 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한 색상이 보색인 녹색인 점이 주목된다.

작은 면적 안에 하나하나가 그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균형잡히게 배치되어 있다. 청색 바탕의 귀에 붉은 색 박쥐가 다소 추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뒷면도 양 옆은 앞과 같이 청색 바탕에 붉은 박쥐문이 시문되었는데 역시 조선조 후기 문양의 특색인 전체적인 대칭 속에 세부의 비대칭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가운데에는 수파문 위로 다리가 달린 향로가 있고, 그 위로 공작 두마리가 매화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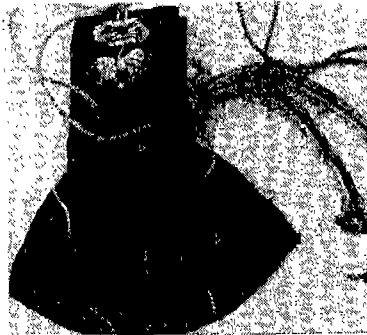


(그림 13) 청홍 귀주머니

꽃가지를 물고 부리를 마주대고 있다. 아래 양 옆과 공작 머리 뒷쪽으로 같은 형태의 매화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주머니 윗부분은 접었을 때를 고려하여 방향이 반대인 영지초 세 송이가 시문되어 있다.

④ 주황색 귀주머니

중앙에 측면형의 연화, 목단, 국화가 밑에서부터 차례로 배치되었고, 그 위로 정면형 매화가 꽃



(그림 14) 남색 귀주머니

송이 세개와 함께 놓인 형태와 양 귀에 박취문을 수 놓은 구도가 앞과 뒤가 같다.

⑤ 남색 귀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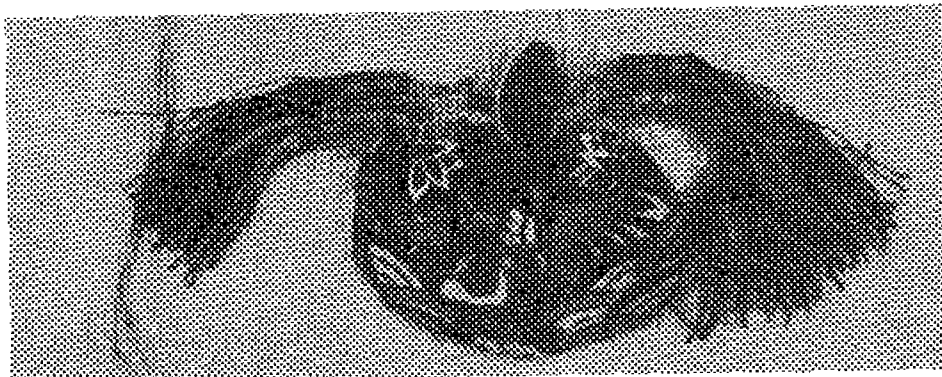
다른 수 주머니들 보다 문양이 다소 적는데 앞에는 아래에 목단 한송이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으로 매화 세송이가 가지와 함께 수 놓였다. 뒤에는 연잎과 연꽃이 반대로 놓여 있다. 간결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보인다.(그림 14)

⑥ 홍색 염낭

귀주머니들 보다 약간 거칠은 제작 상태인 염낭 4개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앞면에 바위, 수파문과 오리가 있으며 연밭과 연잎을 결들인 연화문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뒷면에도 바위, 거북, 영지초 등의 장수길상문과 富자를 수 놓았다.(그림 15)

(2) 수저집

세 개의 수저집 모두 앞면에는 화문을 뒷면에는 길상 문자문을 수 놓았다. 하나는 모직으로 만든 것인데 부분적으로 좀이 먹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빨간 공단으로 만든 두 개 중에서 그림 16의 것을 보면 수파문과 원앙 한쌍, 양 옆에 바위가 있으며 그 위로 커다란 연잎, 연꽃, 연밭이 어우러져 있는 위에 벌이 2 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 형태가 매우 해학적이다. 길상 文字紋은 多男子, 壽富貴, 康寧, 壽福, 福, 富貴功名, 水 등이며, 이 문양들은 제작자나 사용자들이 회구했던 가치관



(그림 15) 홍색 염낭



(그림 16) 자수 수저집

을 나타내고 있다.

(3) 수 노리개

빨간 바탕에 화문과 齧字를 수놓은 발향 노리개가 두 개 있고 호점, 타원 등의 형태로 만든 침낭 노리개들이 있는데, 만들새는 단단하나 자수 문양과 기법은 매우 생략적이고 단순하다.

2. 은세공품

(1) 소삼작 노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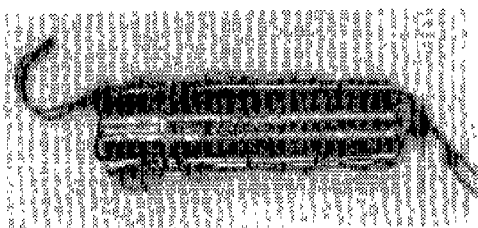
방아다리, 투호, 장도로 주체가 이루어져 있고 청 홍 황의 삼색 낙지발 술이 달려 있다.

(2) 칠보 노리개

침낭 노리개가 하나 있고 두개는 어린이 용인데 하나는 쌍어와 괴불이고 또 하나는 방울과 선녀가 주체이다.

(3) 침통 노리개

크기가 다른 세개의 침통 노리개가 있는데 작은 것부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7)



(그림 17) 침통 노리개

① 지름 2.5cm 길이 8cm

연화문이 매우 곡선적이면서 도안적인 형태로 선각되어 있고 양 옆의 끈통에는 죽엽문이 뚜렷하게 양각된 사이에 대나무 마디와 비슷하게 가로로 구획이 있다.

② 지름 2.5cm 길이 10.8cm

문양의 형태와 양식은 앞의 것과 동일하고 다만 길이가 약간 더 길다.

③ 지름 3cm 길이 11.2cm

제일 큰 것으로서 양 옆의 끈통에는 역시 죽엽문이 양각되어 있고 침통의 중앙부분은 도안화된 문자문 壽와 富가 기하학적으로 크고 꼭차게 시문되었다. 아래 위에는 壽富多男의 한자가 부드러운 필기체로 선각되어 있다.

(4) 장도 노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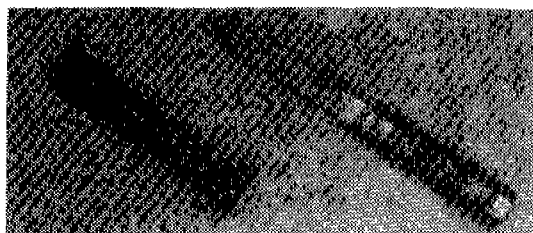
비슷한 크기의 것이 네개가 있는데 각각 문양이 다르다.(그림 18)

① 뚜껑에 운학문, 자루에는 지초문이 양각되었다. 여기에는 젓가락 한벌이 옆에 꽂혀 있어서 눈길을 끈다. 젓가락은 15cm 길이로 가늘지만 아주 단단하게 다듬어져 있다.

② 뚜껑은 육각이고 자루 부분은 원형이다. 뚜껑에는 연화문, 자루에는 매화문이 다른 것 보다 는 드문 드문하게 배치된 구도로 선각되었다.

③ 끈을 꿰는 고리가 달린 쪽에 날개를 펼친 새가 마주 보고 있는 형태로 선각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국화문이 있다.

이외에 방아다리 노리개 하나와 칠보의 民簪과 반지가 하나씩 있다.



(그림 18) 장도 노리개

3. 기 타

홍색 세조대와 Dr. McCune이 착용했던 미투리한 켈레, 정교하게 만든 짚베갯모 하나와 낫수저, 담뱃대 등이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 대상인 소장품의 연대가 비교적 정확하며, 동시대 평안도 지역의 복식 일반을 알 수 있다는데에 있다. 소장품들은 1908년에서 1930년대 경에 평양 지역에서 실제 착용하였던 것이며, 장신구류 중 은제품들은 기념품으로 수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작 연대의 상한선은 19세기 이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양이라는 지역적 한정성은 본 자료가 동시대의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위한 충실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장 복식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의복의 형태가 앞 여밈이 깊은 점이다. 썩이 크고 깊어서 인체를 풍성하게 덮도록 구성된 점이 현대의 의복과 차이가 난다. 즉 썩의 윗 부분과 아래 부분의 나비의 차이가 상당히 커서 썩선의 경사가 커지고 가슴부분의 겹침이 깊어지는 것이다. 저고리의 선은 대부분 직선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여자 저고리의 소매가 좁고 배래가 직선이며, 결마기의 형태가 독특하여 시대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도 한다.

2. 비대칭의 장식요소가 강조되어 있다. 저고리의 깃이나 옷고름 등에서 기본적으로 보이는 비대칭은 아동복의 깃깃과 장식선, 장식과 색동썩 등에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의 깃둘레에 자수된 여러 줄의 비대칭 선은 그 당시에 자주 애용된 장식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과 부분장식은 바로 한국인들이 추구한 조화와 균형으로서 한국적인 멋의 근원과 연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복식을 비롯한 공예품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한국적인 미적 특징이다.

3. 색채는 주로 원색을 사용했고, 색채대비는 보색대비를 애용하였다. 즉 노랑 저고리에 남색 끌동, 청홍색 주머니의 홍색과 청색의 대비, 홍색의 해에 두른 녹색 자수 등을 볼 때, 보색 대비를 통하여 시인도를 높이고 화사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점이 한국 복식에서 자주 나타난다. 또한 남자 어린이의 의복색인 분홍과 노랑 저고리, 자주색의 두루마기 등은 당시의 전반적인 한복 색상이 현재 우리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다양하고 화사했었을 것을 시사한다.

4. 문양은 복식에서는 거의 드물게 사용되었고, 주로 자수제품에서 표현되어 화려한 장식성을 강화하고 있다. 문양의 종류는 화문이 가장 많고 자연풍의 사실적인 표현과 도안풍도 보인다. 문양의 표현 양식은 조선조 후기의 특성 즉 묘사의 사실성 보다는 주제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 대범하고, 단순하게 때로는 생략과 해학으로 나타나 있다. 문양의 상징성이나 함축하는 의미는 길상이며, 구체적으로 십장생을 비롯하여 목단 연화, 국화, 대나무, 등의 화문과 박쥐문이 등장하였다.

5. 소재는 주로 자연소재로서 대부분은 명주나 사 등의 견직물을, 속옷에는 고운 면직물을 사용하였다.

6. 노리개의 주체 부분은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는 대신에 그 아래 부착된 술은 삼원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화려한 미적 특징을 보인다. 한복의 형태가 단순하고 단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대신 장신구는 의복에서 나타내지 못한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집약시켜 표현한 듯하다.

Dr. McCune의 소장 복식을 고찰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외국에 이와 같은 한국 복식자료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개화기에 한국을 방문했던 여러 나라의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풍물에 신기하여, 혹은 학문적인 자료로 한국의 예술품들을 수집하여 본국으로 가져갔다는 추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기정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미술품이나 공예품이지만, 당시대

의 복식도 주요한 관심 대상이었던 만큼 본격적이지는 않더라도 수집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복식 자료들은 당시 한국 복식의 실상을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며, 한국의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들이었다. 이렇듯 외국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복식자료에 대한 연구는 한국 복식학계를 풍부하게 할 것은 물론이며, 이 유물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관해 온 知韓 外國人들에 대한 보답이 되기도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research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 collections of Dr. McCune who was born in Pyung-Yang in 1907 and resided until her marriage to George S. McCune in about 1930.

Her collections consist of three categories : children's costumes, adults' costumes, accessories.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Deep wrappings are found at the front part of the top clothing when worn. The front gusset (SUB) has been dramatically tilted due to the difference in lengths of the top and bottom parts of the front gusset.

2. Assymetry was one of the principles of decorating Korean costumes. The assymetry were repeated at the GIT and SUB of CHOGORE with patchwork patterns.

3. Primary colors were favored in Korean costume. Hue contrast in color combinations was preferred as well, such as : yellow CHOGORE and purple blue CUFFS, a red SUN pattern matched with green embroidery.

4. Surface patterns were not so popular in Korean costumes, while the most colorful and fabulous patterns were shown through the various embroidery artifacts. Patterns were used as a way of expressing of their desires or longings in Korean costumes. The main themes of the patterns were longevity and happiness. The patterns such as peony, lotus, chrysanthemum, bamboo and bat were implying symbolism at that time.

5. Natural materials were preferred for the garments. Silk and cotton were used as the main materials of the costume collections.

Studies of Korean Costume collections owned by international collectors are meaningful to boost the arena of Korean Costumes as well as fill up the vacancy left by lost costume artifacts.